

# 新入生 오리엔테이션 運營의 문제점

崔 柄 煜

(梨花女大 法學科)

흔히들 大學은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행하고 또 그것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곳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스스로 알아서 하기 까지는 역시 계획성 있고 성의 있는 指導가 필요하다. 바로 여기에서 新入生 오리엔테이션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글은 오랫동안 大學人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줄곧 시행되어 온 新入生 오리엔테이션의 프로그램 구성 및 시행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 1. 머리말

입학시기를 전후해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른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또는 '신입생을 위한 대학생활 안내'라는 행사를 하고 있다. 어떤 대학에서는 이 행사가 매우 진지하고 알차게 행하여지지만, 지극히 형식적인 행사로 그치는 대학들도 있는 것 같다. 교수들 중에도 이 행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나, 이는 이 행사의 意味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데서 연유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기관, 어느 단체에서나 새로운 構成員이 유입될 때에는 그들에게 그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情報를 정확하고 요령있게 제공하고, 그들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이 그 기관이나 단체에 빨리 적응하고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우수한 기업체

일수록 온갖 힘을 다 기울여 新入社員 敎育을 철저히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新入生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이다. 신입생이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 그의 여건과 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즉, 그들은 지금까지 학교가 짜 놓은 시간표에 의해 또 일일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他律적으로 행동하며, 교사가 가르치는 지식을 차곡차곡 머리 속에 받아 넣기만 하면 되는 생활에 익숙해 있다가, 하루 아침에 거의 모든 것을 自己責任 아래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공부해야 하는 大學生活을 하게 되므로 신입생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다.

대학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학적·학교편제·교과과정 등을 담은 「대학안내」 또는 「대학요람」(교무처 또는 기획처 편찬)을 만들어

대학의 개요와 여러 제도를 알리고, 또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과 공부하는 방법, 과외활동 등을 소개하는 대학생활 안내책자(대개 학생생활지도연구소가 편찬) 등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홍보물을 이용하는 것조차 게을리한다. 지금까지 몸에 밴 타율성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염려한 대학당국은 다시 학생들에게 직접 그 개요를 설명해 줄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것이 아마도 각 대학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된 주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대학당국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생활에 적응하게 되지만, 일부 학생들은 대학의 생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어물어물 허송세월을 하다가 적당히 대학을 졸업하는 수도 있고, 더러는 아주 적응을 하지 못해 탈락하고마는 경우까지도 있다. 그러므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결코 형식적·의례적으로만 치러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대학의 편제나 교과과정의 연구 못지 않게 진지한 연구·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실천에 옮겨서 대학생들이 입학 초기부터 충실하게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 문제를 전문적·체계적으로 다룰 위치에 있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평소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대학에서 학과장, 단과대학 교·학과장, 학장 등의 보직을 맡아 오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관해 경험했던 것을 정리해 봄으로써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同職者들에게 다소나마 참고가 될까해서이다. 그리고 이 글은 주로 필자가 봉직하고 있는 이화여대, 그중에서도 특히 법정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 2. 新入生 오리엔테이션의 單位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全校 단위로 하는 곳도 있고 대학내 單科大學 단위로 하는 곳도 있다. 신입생 수가 적은 대학이나 독립 단과대학에서는 대개 전교 단위로 하고, 신입생 수가 많

은 대학에서는 단과대학 단위로 별도로 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이 양자를 모두 하는 곳도 있으며, 더 나아가 學科 단위로까지 하는 곳도 있다.

이중 어떤 것이 좋으나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각 대학의 특성과 사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택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학내 각 단과대학은 그 대학대로, 또 각 단과대학 내의 각 학과는 학과대로 지도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2원적 또는 3원적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다원적 방법이 학생들에게 의외로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물론 교수들, 특히 보직교수들은 좀 귀찮겠지만 이것이 敎科指導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기꺼이 감내해야 할 것이다. 다만 2원적 또는 3원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할 경우에 본부는 본부답게 본부에서 필요한 사항을, 단과대학은 단과대학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각 학과는 각 학과에서 필요한 사항을 잘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며, 가능한 한 그 내용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화여대의 경우는 2원적 또는 3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全校 단위의 오리엔테이션

이화여대(이하 본교)에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아주 오래 전부터 전교 단위(차원)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해마다 입학식이 끝나면 곧 그 자리에서 학생처 주관으로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된다. 그 내용은 모든 신입생들에게 공통되는 것만으로 되어 있으며, 보통 1~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 2) 單科大學 단위의 오리엔테이션

본교에서는 모든 단과대학이 오래 전부터 당해 대학의 주관으로 독자적인 계획을 세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 오고 있다. 얼마 전까지는 단과대학별 오리엔테이션이 모두 전교 차원의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그 대학의 사정이나

장소형편에 따라 당일 또는 수일 내에 교내에서 시행되었는데 '80년대 초부터는 몇몇 대학이 1박 2일(또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학교 밖에서 나가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의 경우에는 본교의 11개 단과대학 중 6개 대학(자연과학대학, 법정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가정대학)이 학교 밖에서 시행하였다.

### 3) 學科別 오리엔테이션

① 학과 수가 많고 그러면서도 각 학과 간의 共通性이 적은 단과대학에서는 자연스럽게 단과대학별 오리엔테이션을 극히 간단히 하고 학과별 오리엔테이션에 역점을 두게 된다. 근래 인문대학(12개 학과, 신입생 수 770명)과 사범대학(14개 학과, 신입생 수 700명)이 이와 같이 하고 있다.

② 학과 수나 학생 수가 중간규모인 대학에서는 대개 대학 오리엔테이션과 학과 오리엔테이션에 동일한 비중을 두고, 대학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그에 이어서 학과별 오리엔테이션을 갖게 된다. 자연과학대학(6개 학과, 신입생 수 440명), 음악대학(6개 학과, 신입생 수 240명), 미술대학(7개 학과, 신입생 수 350명), 법정대학(6개 학과, 신입생 수 510명), 가정대학(3개 학과, 신입생 수 180명) 등이 이 예에 속한다.

③ 단일학과로 구성된 단과대학(의대, 간호대, 약대 등)에서는 단과대학 오리엔테이션 외에 학과별 오리엔테이션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하지 않는다.

## 3. 오리엔테이션의 場所와 時期

### 1) 場 所

1970년대 중반까지는 모든 대학의 각종 오리엔테이션이 모두 校內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가 '70년대 후반에 들어 본교의 문리대(현재는 인문과학대학과 자연과학대학으로 분리됨)가 학교 밖에 나가 1박 2일 일정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던 것을 계기로 하여 '80년대부터는 다른 단과대학에도 이것이 파급되고, 나아가서 다른 대학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례가 상당히 늘어났다.

당시 본교 문리대학이 校外로 나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된 연유는 다음과 같다. 본교에서는 '60년대 후반기부터 문리대학 중심으로 본교의 독자적인 學制改編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던중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에서 ① 신입생의 계열별 모집, ② 이수학점 감축(160→140), ③부전공제도 실시 등으로 요약되는 이른바 실험대학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각 대학에 강력히 권장하게 되었는데, 이 계획은 본교의 학제개편 연구방향과 비슷한 점이 많았으므로 본교에서는 적극 호응하였고, 그 결과 본교 문리대학이 '73년도부터 연세대의 가정대와 더불어 전국 최초의 실험대학으로 지정되어 이해부터 계열별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다('75년부터는 본교 전체가 실험대학이 됨).

이 제도를 몇 해 시행했던 본 문리대에서는 학생들에게 이 제도의 취지를 좀더 깊이 있게 알리고 또 2년간 전공을 결정하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所屬感을 심어주고, 전공선택을 적절히 하도록 사전 지도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당시 문리대생은 소속학과 없이 전공만 정하게 하고 전공 결정도 3학년 진학시에 하게 하였다. 전공 결정에는 아무런 자격제한이나 조건이 없이 전적으로 학생의 意思에 의하여 결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어떤 전공은 학년당 250명이 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어떤 전공은 불과 수 명만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좀더 철저할 방안을 구상하다가 1박 2일 정도의 일정으로 校外의 환경이 좋은 곳에서 하는 방법을 찾아내게 된 것이다.

문리대는 그후 수년간 이 방법을 계속하다가 계열별 모집이 다시 학과별 모집으로 환원됨에 따라 중단되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오히려 다른 단과대학에서 받아들여 지금까지 계속되는 곳이 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교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입생들에게 좀더 깊이있는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또 교수와의 거리감을 없애고 장차 함께 대학생활하게 될 학우들 간의 친목을 돈독히하기 위해서는 1박 2일 정도의 합숙 오리엔테이션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 경우에 부딪치게 되는 어려운 점은 첫째는 교육환경에 적합한 장소선정, 둘째는 현저까지의 집단이동 및 숙박과정에서의 사고예방(女학교의 경우에는 특히 이점에 유의), 셋째는 비용조달, 넷째는 교수들의 동참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난점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교당국 및 교수들의 애경어린 협력만 얻을 수 있다면, 특히 단과대학 단위나 학과 단위의 오리엔테이션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혹시 학교부속의 수련관이나 연수원 같은 것이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 2) 時 期

얼마 전까지는 오리엔테이션의 시기도 입학 후에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절술한 1박 2일 일정의 校外 오리엔테이션 사례가 생기면서부터, 특히 단과대학별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입학 전에 하는 예가 생기게 되었다.

상식적으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입학 후에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입학 전에 미리 조금이라도 대학생들의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특히, 전기대학의 경우에는 합격자 등록후 입학일까지 거의 2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려는 더욱 의미가 있다.

그런데 입학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경우, 地方학생들이 미처 숙소확정을 하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며, 또 입학 전의 학생은 아직 정식 학생이 아니므로 특히 1박 2일의 경우는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 그래서 근래에는 입학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경우라도 그 일자리는 되도록 입학일자에 근접하게 하는 경향이 많다.

## 4. 新 入 生 오리엔테이션과 總 學 生 會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관해서는 총학생회에 서도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리엔테이션에는 거의 모든 신입생이 참가하므로 총학생회에 관한 弘報를 하는 때에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박 2일 일정의

경우에는 그들이 신입생을 접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 수가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심야시간 까지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주관까지 희망하기도 한다.

학교당국의 입장에서도 총학생회가 참여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진행이 편리하고 또 학교의 입장에서 어차피 총학생회에 관한 소개를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갖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총학생회의 협조 내지 참여를 권고하기까지도 하였다.

본교의 경우, 전교 오리엔테이션 때에는 총학생회가 관여한 적이 없다. 총학생회는 본교의 독특한 행사인 체플시간중에 총학생회를 소개하는 시간(오래 전부터 체플시간만 총학생회가 주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오리엔테이션이나 학과 오리엔테이션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참여해 왔다. 이러한 상황은 '70년대 중반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는 총학생회가 점차 民主化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고, 특히 6·29 전후에 소위 극렬한 운동권이 총학생회를 장악하게 되면서부터는 총학생회 지도층과 일반학생 간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일반학생들의 총학생회 내지 운동권 참여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총학생회 지도부는 어떻게 해서든 일반학생의 동참을 꾀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의 한 방법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기회를 활용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학교당국과 총학생회 간에 葛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학교당국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쓰려 하고, 총학생회에서는 그보다도 사회 부조리와 기성사회의 非민주성을 규탄하고 이에 맞서 싸울 同志를 만드는 데 온갖 힘을 기울였다. 그래서 정규 프로그램에서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자”는 이야기를 나누고, 심야시간에는 학생회 임원을 중심으로 “열심히 싸우자”는 교육과 토론을 하는 웃지 못할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신입생들이 갈등을

호소해 오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학교당국은 총학생회 임원들에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을 自制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쉽게 시정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학교당국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것을 부분적으로라도 봉쇄해 보았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었다. 무작정 따라오는 극성파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교에서는 총학생회 임원들에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참된 목적이 대학에 새로 들어온 학생들에게 啓蒙을 하는 목적, 자세, 방법 등을 안내하는 데 있는 것이지 學生運動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설득하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 얼마 전부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명칭을 ‘신입생을 위한 대학생활 안내’로 바꾸기까지 하였다.

생각컨대 총학생회가 政治的 운동 중심으로 움직이는 한 그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는 것, 더 나아가 그들이 공동주관을 요구하는 것은 教育者다운 실력으로 거절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도 정치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현행법상 학생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막 학문생활을 시작하려는 신입생에게 특정 목적의 정치의식을 무차별적으로 주입시킨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를 알면서도 교수들이 방관할 수는 없다.

바라건대 하루 빨리 우리 사회가 좀더 민주화되고 건전해져서 젊은 학생들이 이를 비판하고 투쟁하는 데 정열을 쏟지 않고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하는 데 진력을 기울이게 되었으면 한다. 한편, 학생들도 이렇게 좋은 사회가 일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또 社會改良은 부족하더라도 기성세대에게 맡기고, 총학생회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人格形成을 도와 주는 일에 전념하였으면 한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학교당국과 함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여 후배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게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 5. 新入生 오리엔테이션의 事例

지금까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문제되는 점을 대강 살펴 보았는데, 이제 본교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 사례를 소개해 보겠다.

### 1) 全校 단위의 오리엔테이션

본교의 전교적 차원의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윤곽은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의 내용만 살펴 본다. 프로그램은 대체로 ① 신입생들에게 당장 필요한 學事 제도와 주요한 學則의 설명, ② 학생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칙과 학생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사항(학교의 각종 이용시설 소개 포함)에 대한 설명, ③ 校歌 지도, ④ 학교의 沿革과 現況 설명 등이 중심이 된다.

약 10년 전에는 당시 문교부(現 교육부)의 강력한 권고로 신입생의 ‘운동권화’를 예방하기 위한 特講을 한 적이 있으나, 한두 해 시행되는 끝 없에버렸다. 여기서 각 단과대학별로 필요한 정보제공은 하지 않는다. 단과대학별 오리엔테이션이 별도로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1991 년도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본교에서는 이를 ‘신입생을 위한 대학생활 안내’라고 한다)의 프로그램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찬송가 및 기도

1부 : 대학생활 안내

학사지도(학부차장)

학생생활지도(학생처장)

이화의 노래(교가 및 “이화는 빛나리” 지도)

2부 : 영화상영(제목 : 이화 100주년)

이 영화는 이화가 창립 100주년을 맞은 1986년도에 제작한 것으로서 학교의 연혁과 현황, 각 대학(원) 및 부속기관을 소개하고 있다.

### 2) 本校 法政大學의 오리엔테이션

본교 내의 각 단과대학별 오리엔테이션의 윤곽과 프로그램 내용은 대강 비슷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 여기서는 필자가 봉직하고 있는 법정대학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법정대학에서도 1978년까지는 입학식을 마치고 그날 오후 또는 그 다음날 교내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그러나 '75년부터는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했고, 또 법정대학 자체가 좀더 비약적 발전을 해보자는 강력한 의지의 실천방법으로 '79년부터는 1박 2일 일정으로 대학 오리엔테이션의 비중을 높였다. 그래서 '79~'80년에는 교내 기숙사에서 1박 2일로, '81년도부터는 외부시설을 이용해 오고 있다.

. 그후 신입생의 학과별 모집을 계기로 다시 교내에서 1일 일정으로 하기도 하였으나, 근래에는 다시 학교 수련관에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하고 있다. 現地까지의 이동시간이 다소 소요되기는 하지만, 차내에서도 별도의 프로그램을 갖기 때문에 시간이 유실되지는 않는다. 교수들의 참여도는 거의 100%이다.

참고로 1991년도 프로그램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전>

- 제 1 일 : 학교 집합 출발
- 결심식사(차내 도시락)
- 현지도착 및 방 배정

<오후>

- 예 배
- 학장인사
- 학사안내
- 본 대학의 교수 소개
- 특강(강사 : 본 대학 교수)
- 학과별 대학 운동경기
- 저녁식사

<저녁>

- 각 학과별 모임(학과별 오리엔테이션 해당)
- 레크리에이션
- 취침

<오전>

- 제 2 일 : 아침식사
- 산책(학교 수련관에서 문경세계 제 3 판문까지 왕복. 이때 교수들 전원이 학생과 산책·대화시간을 갖는다)
- 점심식사

<오후>

- 출발 예배
- 현지에서 학교까지 이동
- 학교에서 해산

위 프로그램 중 제 1일 오후순서에 들어 있는 특강은 종전에는 두 강좌를 마련했었는데 학생들이 지루하게 생각해서 1991년부터는 한 강좌로 줄였다. 그 내용은 법정대학 각 학과 신입생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서, 예컨대 '사회과학의 방법론', '여성과 사회과학', '현대와 사회과학의 역할', '대학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대학에서 학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다.

學기: 안내에서는 ① 1년 간의 학사일정 설명, ② 수강신청 방법 등 학사제도 설명, ③ 각종의 장학금제도 안내, ④ 법정대학의 시설 및 이용안내, ⑤ 사법시험, 행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안내 및 준비방법 설명, ⑥ 과외 활동 및 동아리 활동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법정대학에서는 1991년부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총학생회 임원들을 참여시키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총학생회소개 순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총학생회가 교내에서 별도로 신입생 환영회를 가질 때 하도록 총학생회측의 협조를 구하였는데, 다소의 반발은 있었으나 잘 타협이 이루어졌다. 본교 내의 다른 단과대학에서는 대개 총학생회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아직도 대학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고 있거나, 총학생회가 별도로 총학생회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하고 있다.

## 6. 結 語

모든 일은 시작이 중요하다. 대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흔히 대학은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곳이라고 한다. 그러나 스스로 알아서 하기까지에는 역사指導가 필요하다. 여기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각 대학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한 행사로 치러져 왔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추어 대학 관계자들은 모두 좀더 배전의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 글이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데 자그마한 자극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